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인간은 이리도 영성한테 정치인들은

인간처럼 나약한 것도 없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마치 만능인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정부터 살펴보자. 부모는 대체로 감지처럼 행동한다. 자녀보다는 자신이 모든 것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자녀와 부모와의 갈등은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 일명 문제아라 칭해지는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수없이 느꼈다.

몇 년 전부터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거의 포기하지 않고 한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다. 일명 특별교육이다. 교육기간은 보통 한 그룹당 일주일 정도(월~금, 5일)로 온종일 한다. 교육의 시작은 보통 3월부터 12월까지 학기 중에 진행된다.

물론 처음 대할 때는 외계인처럼 느껴진다. 예를 들면, 어떤 여중 1학년 학생의 경우는 9시에 도

착하자마자 전을 벌인다. 화장품을 전을 갖가지 화장품을 책상위에 올려놓고 화장을 한다. 손길도 바쁘다. 얼굴 이곳저곳을 '따다닥' '따다닥' 두드리느라, "화장은 쉬는 시간에 하면 어떨까?" 라고 말을 건네 본다. 그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여 중고생이 6~7명까지 함께 받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눈 흘김' 뿐이다. 이때 학교나 가정에서는 어떻게 대할까. 아마도 기성세대의 역할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지만 필자의 경우는 '그래, 알았다.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자' 라고 말한다. 그 후에는 나머지 학생들과만 진행한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강점을 찾는데 주력한다. 물론 쉽지 않다.

우선 피해의식이 많다.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에서 칭찬을

받은 경우도 거의 없다. 때문에 자존감 또한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거의 자포자기 상태다. 화력 수준 또한 낮다. 학교에서의 생활은 지각이 다반사다. 등교하더라도 수업은 포기한 채 집만 잔다. '일제나 일어나노?'고 물으면 잠심 시간이다. 오후에는 뛰어나고 또 물으면 역시 잔다. 학교시간에야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 이후는 친구들과 어울리든지 자기만의 놀이에 빠져 밤이 늦도록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학교에서 넘어온 이들에 대한 평가도 물론 아주 나쁘다. 이러한 이들은 이래저래 나름대로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현 교육제도로는 이들을 구제할 뾰족한 수가 별로 없어 보인다. 때문에 중·고등학교 6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으로 뜻깊은 나이를 창살 없는 감옥에서 보내는 것이다.

필자는 하루정도 교육을 하다 보면 대체로 강점을 찾아낸다. 그 강점을 들어 칭찬요법에 주력한다. 이때 무조건 칭찬은 절대 금물이다. 본인도 인정할 수 있는 강점을 찾았을 때만 그 점에 대해서 짧막하게 칭찬한다. 그러면서 무한한 라포를 형성해간다.

그러다보면 그 이튿날부터는 필자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한다. 말도 건넨다. 심부름도 한다. 이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은 교사가 자기는 도덕적이기도 솔선수범하지도 못하면서 학생들을 나무랄 때, 무조건 편견을 가지고 자기만 나무랄 때, 앞에서는 칭찬하면서 다른 사람과 만날 때는 오히려 비하하는 소리를 할 때, 훈육의 잣대가 일률적이지 못할 때, 시대에 맞지 않는 잔소리 할 때 등의 것들이 학교와 멀어지게 한다고 했다. 집에서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아빠의 일방적인 훈육 아닌 훈육이 강할수록 이들의 반항은 깊어졌다. 그렇다. 인간이란 이리도 영성이다. 지금 정치권에서 잘났다고 떠드는 정치인들은 어떨까. 소위 우리사회의 지도자라고 자칭·타칭 연구에 회자되는 자들은 또한 어떨까.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社說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전국적으로 홍역 환자들이 연달아 나오는 등 최근 홍역이 자주 발생하면서 감염 경로와 예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홍역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연령 구분 없이 감염될 수 있는데, 특히 영유아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노약자도 자주 걸린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홍역에 걸리면 초기에 감기처럼 기침, 콧물, 결막염 증상 등이 나타나고 나중에 고열과 함께 얼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이 일어난다. 전염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진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 등으로 호흡기 비말(침방울)과 공기를 전파된다. 이런 이유로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지키고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

홍역은 예방접종을 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만큼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현지에서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홍역은 현재 국가예방접종 사업대상인 제2군 감염병에 속한다.

내년부터는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안에 따라 제2군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같은 급수에는 결핵과 폴레라, 장티푸스 등이 포함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홍역 확진 시 24시간 내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감염병은 예방이 최선이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홍역이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는 만큼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禍因惡積

재앙 인악 쌓음

禍因惡積

▷ 뜻: 재앙(災殃)은 악(惡)을 쌓음에 인(因)한 것이므로, 재앙(災殃)을 받는 이는 평소(平素)에 악(惡)을 쌓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깨끗한 조합장 선거

나는 학생시절에서부터 지금까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국민들의 권리이므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듣고 지라왔지만 속으로는 막연하게 '선거라는 건 당연히 공정하게 치러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었다. 금년 3월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공정히 치루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하는 공정선거지원단 활동을 하게 되면서 과연 선거란 무엇인지 공정선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졌고, 그래서 나는 먼저 선거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았다.

선거(選舉)란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전국에 걸쳐서 또는 일정한 구역에서 공직을 맡을 사람을 투표에 의하여 선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나와 있었다. 그러면 이번에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무엇일까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조합장 선거는 과거 각 조합별로 개별적으로 실시했으나 돈 선거, 경운기선거로 불리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다 2015년 3월 11일 사상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전국에서 동시에 조합장선거를 치루게 되어 전국 1,326개 조합(농협 1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의 조합장을 선출하였다.

이제 곧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두달 남짓 다가왔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오는 3월13일에 1,340여개 조합에서 조합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의 임후보예정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유의해야한다. 지난 2018년 9월 21일(조합장 임기 만료 180일前)부터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임후보 예정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부행위 예외사항'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에 게 어떠한 금품도 제공할 수 없다.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이 해당 조합원으로 제한된다 보니 한 표 한 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크고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유혹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후보자들이 유동적인 표를 가진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당선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

런 마음을 이용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금품을 요구해서 조합장선거에서 위법한 금품선거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한 선거가 치루어 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공정선거지원단들 또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기부행위를 비롯하여 사전선거운동 같은 각종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데 온 힘을 쏟아 활동하고 있다.

조합원들 또한 과거처럼 금품선거라는 악명을 답습하지 않도록 임후보예정자들이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면 조합장 선거가 조합원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꿈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청렴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깨끗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 전국에 있는 우리 공정선거지원단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든든한 발로써 활동할 것이다.

이재석 / 장성군선거관리공정선거지원단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를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